

[종합·해설]

■ 내홍 수습 국면 불구 여진 계속되는 한나라

‘親朴－親李’ 구도 표면화... ‘불안한 동거’

〈친 박근혜〉 〈친 이명박〉

‘갈등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17일 님새간...

이재오 어제 당무 복귀 오늘 최고위원회의 참석 당원·대의원 勢 양분상태... 大選까지 갈등 상존



순천 선암사에 침거 중이던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무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강재섭 대표와 이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50%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은 당 대선후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각 대선주자 진영에서는 당원·대의원 구조를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시장과 가까운 이 최고위원은 현행 당원협의회 및 대의원 구조가 ‘친박(親朴·친 박근혜) 일색’에서 공정 경선을 위해서는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당원이다.

당장 이 최고위원이 상경 일선으로 ‘내년 당내 대권주자 공경경선을 위해선 특정 인맥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당과 시·도당 당직자들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선전포고형’에 가깝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박 전 대표와 가까운 강 대표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고리로 박근혜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최고위원의 당무복귀를 ‘불안한 동거’ 내지는 심하게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보는 시각도 이런 맥락에서다.

천정배 장관 당복귀 임박

여당발 정계개편에 촉각

어제 사의 표명

천정배 법무장관(사진)의 당 복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천 장관의 당 복귀는 여권의 역학구도에 적잖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돼 그의 복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 장관의 한 측근은 “천 장관이 최근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긴 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7일 “천 장관이 최근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다음달 초 개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천 장관이 굳이 서둘러 복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추가 개각과도 맞물려 있어 정기국회 이전 복귀는 쉽지 않다는 게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열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천 장관의 당 복귀는 여당의 ‘대선 후보 국민경선제’ 추진 등과 맞물려 여당발(發)정계개편 논의를 촉발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적지 않다. 당내에서는 천 장관이 당에 복귀하면 정동영 전 의장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세력 규합을 시도할 것이라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만씨에 마약공급 40대 김홍수에 로비후 구속 면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지만씨에게 마약을 여러 차례 공급해 준 40대 남성이 범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 해결 청탁을 한 뒤 구속을 한 차례 면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법원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2002년 5월3일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된 양모씨측으로부터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협조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양씨는 2001년 8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지만씨에게 히로뽕을 건네 준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이른날 양씨측에 “어제 영장 담당 판사들과 술을 마셨다”면서 술값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날 실제로 구속 영장이 가짜 양씨는 석방됐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박지만씨가 구속수감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었던 때였다. 마약 투약자가 구속됐는데도 공급자는 석방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양씨는 결국 구속돼 같은해 10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김씨의 로비는 미완에 그친 셈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국회 ‘김병준 청문회’ 쟁점

국회는 18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교육관 등을 집중 검증한다.

‘전문성’·‘코드인사’ 여야 공방 불가피

◇‘코드인사’ 논란=김 후보자가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자연스럽게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자가 교육정책까지 난맥상에 빠뜨릴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바라고 있다. ◇교육 비전문가 논란=김 후보자가 실태처럼 얕은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다.

‘범용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철학·도덕성=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성 문제에서 특별한 흠결을 찾기는 힘들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측은 김 후보자가 교육 정책과 관련, 말 바꾸기를 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우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주장하던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고 비판했다.

산행안내

- ▲이대포산악회 충북 괴산 조봉산, 낙영산, 도봉산 7월19일(수) 07시45분 중앙지구 박마루, 08시 동아병원 08시20분 문예회관 출발

- ▲광주국산악회 지리산 피아골 7월20일(목) 08시 연주체육관, 08시20분 문예회관후문 출발

- ▲광주도산악회 대이산(송마루~용주지곡) 7월22일(토) 08시 광주역, 08시10분 문예회관 후문 출발

- ▲광주한길산악회 영월 백운산 등 강릉프링 7월23일(일) 06:00시 광주역 출발

- ▲가장 전문건너편 출발 #cafe.daum.net/kyrsmn T.016-608-3804, 016-874-2900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2007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이름방학 문제풀이 대 특강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학 국어 영어 유익교육 초등교육

한빛공무원학원 “10월 1일 선관위” “9월 24일 선관위” 시험대비